
		<h1>보도자료</h1>		<small>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small> 	
		배포일시	2018. 11. 5.(월) 총 4매(본문3, 첨부1)		
담당 부서	도로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이용욱, 사무관 서지웅, 주무관 김상용 ·☎ (044)201-3875, 3887, 3883		
담당 부서	한국도로공사	담 당 자	·국민휴게시설팀장 이은성, 차장 고승민 ·☎ (054)811-2350, 2351		
보도일시		2018년 11월 6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6.(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고속도로 휴게소의 변신,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고 공공성 높이고 경주빵 등 사회적 기업 12개소 입점·임대료 감면·운영 수익 등 사회적 가치 연 20억 원

(사례) 베트남에서 김해로 시집 온 이주여성 A씨는 일자리를 찾고 있던 중, 집 근처 진영휴게소의 사회적 기업 ‘통(Tong) 카페(다문화카페)’에서 다문화 가정여성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빵과 과일 주스를 파는 가게여서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다른 베트남 친구들도 사귄 수 있고, 돈을 벌면 살림에도 보탬이 될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 고속도로 휴게소가 사회적 기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으로 변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연내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회적 기업 매장 12개소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 추구보다 공공서비스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는 기업으로,
 - 사회적 기업의 휴게소 입점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휴게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사회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2022 고속도로 휴게소 중장기 혁신 로드맵’의 일환*이다.

* 2022 고속도로 휴게소 중장기 혁신 로드맵(9.18 배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공공성’과 ‘고객가치’를 중심으로 한 이용자 중심의 휴게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수립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중장기 혁신계획

- 그동안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구매 등으로 사회적 기업을 간접 지원하였으나,
 -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판로를 확대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휴게소에 입점한 사회적 기업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 지난 8월 도로공사가 직영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양평 방향)에 고속도로 사회적 기업 1호점 ‘경주제과’가 개장하였고
 - 이후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지원제도 개선 등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 이번에 휴게소에 입점하는 사회적 기업은 고객 수요가 높은 제과점 및 수제 소품 제조업체로서,
 - 교통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등 주요 노선의 거점 휴게소에 입점하여 매장을 운영한다.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사회적 기업매장 2018년 입점계획 】

휴게소 (방향)	노선	사회적 기업 (입점시기)	판매 품목	휴게소 (방향)	노선	사회적 기업 (입점시기)	판매 품목
문경(양평)	중부내륙	경주제과 (8월, 운영 중)	경주빵	삼진강(순천)	남해선	히디자인 (10.20일)	여성 스킨
죽전(서울)	경부선	한입(핸즈굿) (10.29일)	수제 쿠키	칠곡(서울)	경부선	해피브레드 (10.29일)	꿀밤케익
문막(강릉)	영동선	두레공예조합 (10.31일)	액세서리	평사(부산)	경부선	해피브레드 (10.29일)	꿀밤케익
여주(서창)	영동선	핸즈굿 (11.5일)	수제 쿠키	언양(서울)	경부선	경주제과 (10.25일)	경주빵
행담도	서해안선	더부러 (11월말)	전통차, 한과	진영(순천)	남해선	통(Tong)카페 (10.29일)	과일 주스
여신(천안)	호남선	천년누리제과 (11.20일)	전주비빔빵	칠서(양평)	중부내륙	이레우리밀 (10.31일)	우리밀빵

- 도로공사는 휴게소에 입점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일반 매장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고, 자체 브랜드 이미지(BI)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취업 취약계층(44명)에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한다.
 - 제조생산, 판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이들은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운영수익의 혜택을 제공받고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월급을 지급받는다.
- 이러한 휴게소 입점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경제가치는 연간 약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 운영에 참여한 취약계층 44명에게 연간 10.5억 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사회적 기업은 도공의 임대료 감면(연간 7.2억 원) 및 운영수익(연간 2.3억 원)으로 9.5억 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 사회적 기업은 이 수익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종사원 복지증진, 지역사회 기부와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사회적 기업의 휴게소 입점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회적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공익적인 효과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 선호도 조사, 입점업체 의견 청취 등 사후관리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서지웅 사무관(☎ 044-201-38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속도로 사회적기업 매장 관련 사진

□ **고속도로 사회적기업 매장**



<한국도로공사 사회적기업 간판>



<문경휴게소(양평방향) 매장>



<죽전휴게소(서울방향) 매장>



<경주제과 찰보리빵, 경주빵>



<언양휴게소(서울방향) 매장>



<진영휴게소(순천방향) 매장>